

地方分枝에 대한 地域住民의 의식

—地方分枝의 現況과 展望(4)—

金 珍 浩

(二世大 行政學科)

地方分枝의 現況과 展望

1. 地方分枝 캠퍼스의 大學 文化 형성
: 金永根
2. 地方分枝의 實驗·實習設備에 관한 분석
: 姜錫泰
3. 地方分枝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
: 安京植
4. 地方分枝에 대한 地域住民의 의식
: 金珍浩
5. 地方分枝 캠퍼스 環境에의 적응
: 金水日

1. 緒 言

서울 소재 우수 大學들이 政府의 政策적 권유와 대학의 사정에 따라 각 地方에 分枝를 設치하기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이 가워워지고 있다. 물론 分枝를 設치하게 된 名分과 實際 目的은 각 대학마다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추측컨대 ① 政府의 人口分散 政策에 副應하고, ② 京·鄉間에 존재하는 大學教育의 質의 격차를 줄여 地方 住民에게 보다 많은 良質의 大學教育의 機會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③ 社會的·經濟的 및 文化的인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住民生活 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實質的으로 地

域發展에 功헌하고자 하였던 것은 대개 공통되는 目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당초의 目的들이 현재까지 계획대로 順조롭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 精確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目的들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첫째로 首都 人口分散이라는 점에 있어서 (캠퍼스의 위치와 서울간의 交通 편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학생의 40~80%를 占하는 서울 거주자 중 과반수가 매일 서울에서 通學하고 있는 현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成功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 現지에서 기숙사나 하숙, 자취의 방법을 이용하는 나머지 학생들도 週末 혹은 방학 기간에는 서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子女 教育을 위해 지방으로 거주지를 移轉한다든가 하는 등의 실제적인 人口分散 效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뒤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각 分枝는 서울의 本校와 同等한 實質的 및 形式的 評價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住民의 서울 選好性을 감소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서울에로의 人口集中을 抑制하는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서울과 지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의 質的 수준을 높여서 굳이 서울로 오지 않고도 그 지방에서 훌륭한 大學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兩面性을 가진다. 즉 그 하나는 각 分校가 서울 本校의 기존의 水準과 동등한 教育 與件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의 측면은 지방 주민들이 分校의 교육 여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이른바 名門 本校와 서울에의 進入을 選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後者의 경우 더욱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인데 그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意識 構造의 변화를 誘導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세째로 지역 주민의 經濟·社會·文化的 생활 수준 향상에의 기여라는 목적도 당초의 意圖와는 먼 거리에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각 分校의 운영 책임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鄉土에 존재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機能의 活性化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또 각 分校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나 在學生들도 그 지역에 愛情을 가지고 定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一時的으로 머물렀다가 떠나버릴 곳으로 생각하여 지역 발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對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우리의 大學'이라는 愛着心을 갖지 못하게 되며 때로는 被害意識 혹은 敵對感마저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分校 설치 당시의 여러 가지 目的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 생각하면, 이는 곧 分校制度가 직어도 현재까지는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모든 分校들을 폐쇄할 수도 없는 현실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方法으로든지 그 改善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岐路에 선 것이다.

이처럼 당면한 難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大學當局은 그 主體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革新的 對策을 마련하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② 政府도 文教政策的 次元에서 劃期的 支援과 協調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③ 本校의 教授를 포함한 在職教授와 學生들까지도 현

제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大局의으로 打開策 강구와 실시에 호응하는 등 調和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그러한 노력은 몇 개의 焦點에 集中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첫째로 무엇보다 分校의 教育 與件의 改善에 주어져야 한다. 예컨대 도서관, 실험·실습 기자재, 기숙사, 강의 및 학생 활동 공간 등이 質的·量的으로 적어도 本校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寄宿舍 시설은 서울 캠퍼스와 비교될 것이 아니라 分校의 特性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또 韓國 大學教育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한다는 견지에서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로 專任教授의 생활과 연구 여건을 증진시키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分校의 專任教授가 교육 현장에서 불편 없는 생활과 연구를 併行할 수 있어야만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조건이 확보될 때 비로소 더욱 훌륭한 교수를 초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研究 與件이란 말은 연구 공간, 시설, 도서 및 기자재 등과 더불어 研究補助員의 확보를 의미하며 生活 與件이란 말은 本校 교수와 동등한 수준의 보수 지급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의 상실과 加外費用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報酬의 支給, 그리고 이에 相應하는 생활 공간 및 시설의 확보를 의미한다.

세째로 地域住民을 포함한 다수 국민의 分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앞의 두 가지 문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결되더라도 실제 학부모들이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허상이 될 뿐이며 또 아무리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더라도 이들을 사회에서 흡수(취업)하지 못한다면 徒勞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앞서 언급한 첫째와 둘째 문제는 大學과 政府當局 그리고 그 構成員들의 직접적인 노력의 결과로 改善이 가능한 것이지만 세번째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 長期間에 걸친 多角的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즉, 일반 국민이 현재의 意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分校 教育의 質的 水準과 效果에 대한 신

회를 가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意識이 팽배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며 그 교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分校 教育의 效果가 사회적으로 公認되기 까지 長期間의 集中的 노력의 다양한 方法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本稿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第一段階로 地域住民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의 分校에 관한 認識 狀況을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調査 研究는 수차에 걸쳐 時差를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번의 調査는 그 최초의 試圖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調査의 基礎

1) 調査의 目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地域住民의 意識은 分校制度의 死活에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變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分校에 대한 당해 地域住民들의 意識을 먼저 취합·분석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각 地方의 分校들이 얼마나 그 地域에 影響을 주었는가? 당초 기대하였던 政策 效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또 앞으로는 分校政策의 方向을 어떻게 修正·定立해 나갈 것인가 하는 등의 여러 部面에서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이 調査研究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具體的인 目標을 設定하였다.

첫째, 地方分校에 대한 住民의 協調 實態와 향후의 그 可能性에 관한 調査이다. 協調란 말은 消極的으로는 住民이 大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積極的으로는 精神的·物質的으로 助力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大學이 그 地域에 寄與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展望은 어떤가 하는 문제에 관한 주민의 생각을 調査하는 데 目的을 두었다. 大學은 學問 탐구와 人材의 養成을 기본 임무로 삼고 있지만 地域의 발전과 文化 창달에의 공헌도 또한 이에 못지않는 大學의 역할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住民들의 肯定的 反應은 곧 大

學 自體의 發展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 分校의 教育效果를 住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실제 교육 효과는 아직 分校의 歷史가 日淺하므로 評價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住民들의 期待値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分校 入學을 희망하는 學生들의 質的 水準과 입학 후의 學習效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네째, 分校에 대한 地域住民의 否定的 認識을 조사·분석하는 데 目的을 두었다. 여기서는 地方分校가 地域社會에 미치는 逆機能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체 국가 사회에 대한 惡影響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의 다섯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번의 調査는 現 時點의 斷面만을 추출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와 類似한 作業을 함으로써 時系列分析을 통한 長期的 傾向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2) 調査의 範圍와 方法

(1) 調査의 對象과 範圍

이 調査는 題名에서 밝힌 바와 같이 地方分校의 影響이 미치는 地域住民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調査의 對象은 江原道 原州市와 原城郡 興業面을 중심으로 하여 半徑 약 25km의 타원형 地域內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男女 住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958명(남 609명, 여 349명)을 표본으로 無作爲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2) 調査의 方法

이 調査는 設問紙를 油印 配布하여 완성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調査員이 일일이 訪問하여 문항을 설명하고 응답자의 의사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의 학력이나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誤差를 줄였으며 일정한 判斷 基準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調査의 內容과 基本 假定

(1) 內容

이 調査는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목적에 따라 10 개의 問項을 設定하였는데, 당초에는 각 문항의 빈도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각 有關問項間의 相關 관계도 계산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原因으로 철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문항의 單純 빈도만을 計算하였다.

(2) 基本 假定

이 조사는 서울 所在 大學들의 地方分校 설치가 地域住民들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크게 환영 받는 일이라고 前提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假定하였다.

첫째는 分校가 그 地方에 매우 필요하며 여러 가지로 有益한 存在라고 認識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의 이유로 인하여 地域住民들은 地方分校에 대한 國家的 次元의 積極의 支援 育成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세째는 앞으로 地域 發展을 위하여 地方分校가 크게 공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基本 假定과 더불어 여러 가지 否定的 측면도 지적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代案도 나타날 것이므로 이 調査에서는 이들을 整理하여 다음의 研究資料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였다.

3. 分校 存在의 價値性

1) 分校 存在의 必要性

地方分校가 그 地域住民들에게 얼마 만큼 存

在 價値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6 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막연하게 地方分校의 必要性을 물었으며, 둘째는 地方分校가 地域社會의 어떤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가를 묻고 덧붙여서 地方自治와의 상호 관계 문항을 2개 첨가하였다. 세째로는 실제로 子女들을 地方分校에 進學시키는 등 敎育 本來의 目的에 分校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進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라도 分校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이용을 기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차례대로 한 가지씩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概括的인 必要性에 대해서는 ‘地方分校가 地域社會에 存在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비교적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등의 네 가지 答項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肯定的인 大답이 약 83%(①+②)로서 대부분의 住民이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學歷別로는 高卒者들의 86.7%가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자기 경험에 비추어 地域에서의 大學敎育 機會 擴大를 염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否定的 측면의 ③에는 약 8.1%, 그리고 ④에도 약 9.0%가 大답하고 있는데 비록 絶對值는 작은 것이지만 國卒 이하의 水準에서 약 32%(③+④)가 여기에 大답한 것은 大學敎育 자체를 過少評價하거나 大學 水準의 敎育을 諦念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學歷別 必要性 認識度

| 학력별 | ① | | ② | | ③ | | ④ | | 계 |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국 출 이 하 | 9 | 25.0 | 15 | 41.7 | 5 | 13.9 | 7 | 19.4 | 36 | 100 |
| 중 출 이 하 | 25 | 32.1 | 40 | 51.3 | 6 | 7.7 | 7 | 8.9 | 78 | 100 |
| 고 출 이 하 | 102 | 23.5 | 275 | 63.2 | 31 | 7.1 | 27 | 6.2 | 435 | 100 |
| 대 출 이 상 | 102 | 29.7 | 171 | 49.9 | 30 | 8.7 | 40 | 11.7 | 343 | 100 |
| 계 | 238 | 26.7 | 501 | 56.2 | 72 | 8.1 | 81 | 9.0 | 892 | 100 |

〈표 2〉 分校의 寄與 部門에 대한 意識(직업별)

| 직업별 | 문항별 | ① 경 계 | | ② 사 회 | | ③ 교 육 | | ④ 복 지 | | ⑤ 기 타 | | 계 | |
|------------|-----|-----------|------|-----------|------|-----------|------|-----------|------|-----------|------|-----------|-------|
| | | 인원 (名) | % | 인원 (名) | % | 인원 (名) | % | 인원 (名) | % | 인원 (名) | % | 인원 (名) | % |
| 農 業 | | 11 | 15.5 | 15 | 21.1 | 32 | 45.1 | 9 | 12.7 | 4 | 5.6 | 71 | 100.0 |
| 商 業(서비스業) | | 60 | 20.1 | 90 | 30.2 | 106 | 35.6 | 24 | 8.1 | 18 | 6.0 | 298 | 100.0 |
| 公 務 員 | | 18 | 12.9 | 48 | 34.3 | 62 | 44.3 | 0 | 0 | 12 | 8.5 | 140 | 100.0 |
| 勤 勞 者(會社員) | | 15 | 13.9 | 36 | 33.3 | 44 | 40.7 | 3 | 2.8 | 10 | 9.3 | 108 | 100.0 |
| 學 生 | | 26 | 14.1 | 77 | 41.6 | 54 | 29.2 | 6 | 3.2 | 22 | 11.9 | 185 | 100.0 |
| 기 타 | | 13 | 14.0 | 38 | 40.9 | 17 | 18.3 | 17 | 18.3 | 8 | 8.5 | 93 | 100.0 |
| 계 | | 143 | 15.9 | 304 | 34.0 | 315 | 35.2 | 59 | 6.6 | 74 | 8.3 | 895 | 100.0 |

2) 地域에의 寄與度

이 問項에서는 分校가 地域社會에 寄與하는 部門을 5 가지, 즉 經濟, 社會, 敎育, 福祉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答項을 설정하고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敎育 부문이 35.2%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런데 意外로 社會 부문에 대한 寄與度を 높이 評價한 반면 經濟的 측면에의 寄與度を 15.9%로 낮게 評價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社會 부문에의 기여를 經濟 부문보다 훨씬 높이(34%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學生과 기타 職業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社會 부문에의 寄與를 41.6%와 40.9%로 각각 나타냄으로써 敎育 부문에의 寄與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社會 부문에의 기여가 크게 인식되는 것은 생각컨대 大學生들의 文化活動(예를 들면 音樂會나 演劇公演 등)이나 계몽 봉사 활동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期待值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經濟 부문의 寄與를 낮게 평가한 것은 經濟的 寄與가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地域的 範圍가 좁으며(예를 들면 學校 주변이나 通學 路線의 인접한 곳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만 市內라 하더라도 그밖의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며) 間接的인 파급 효과는 받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問項에서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할 것

은 만약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答項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몇 개의 答項에 順位를 매기라고 設問하였다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랬더라면 상당히 다른, 어쩌면 敎育·社會 및 經濟 부문이 거의 대등한 比重으로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地域社會에 대한 分校의 役割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설문하였는데 그것은 地方自治制에 관한 것이었다. 즉 地方自治制가 실시될 경우 그 地域의 分校는 어떤 役割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약 49.2%가 補助 혹은 諮問機能을 생각하고, 약 30%는 先導的 役割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職業別로 보나 學歷別로 보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떻든 住民의 대부분인 약 80%의 人口가 地方自治制에 관한한 分校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3) 分校의 敎育目的的 利用

이 項은 大學에 進學할 子女를 둔 學父母들이 실제로 얼마 만큼 分校에 入學시킬 意思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答項을 ① 分校에 보내겠다, ② 서울 本校에 보내겠다, ③ 그때 봐서 결정하겠다, ④ 分校에는 보낼 생각이 없다, ⑤ 모르겠다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두드러진 特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는 地方分校에 보내겠다고 대답한 人員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答項 ①은 20.8%에 불과한데 ②

〈표 3〉 地方自治에 대한 分校의 役割

| 구분 | 문항별 | ① 선도적 역할 | | ② 보조 자문 역할 | | ③ 현재와 비등 | | ④ 전혀 무관 | | 계 | |
|-----|---------|----------|------|------------|------|----------|------|---------|-----|------|-------|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 직업별 | 농업 | 17 | 23.9 | 36 | 50.7 | 18 | 25.4 | 0 | 0.0 | 71 | 100.0 |
| | 상업및서비스업 | 91 | 30.5 | 152 | 51.0 | 44 | 14.8 | 11 | 3.7 | 298 | 100.0 |
| | 공무원 | 46 | 32.9 | 64 | 45.7 | 23 | 16.4 | 7 | 5.0 | 140 | 100.0 |
| | 근로자및회사원 | 25 | 23.1 | 56 | 51.9 | 21 | 19.4 | 6 | 5.6 | 108 | 100.0 |
| | 학생 | 54 | 29.1 | 95 | 51.4 | 22 | 11.9 | 14 | 7.6 | 185 | 100.0 |
| | 기타 | 33 | 35.5 | 37 | 39.8 | 15 | 16.1 | 8 | 8.6 | 93 | 100.0 |
| 계 | | 266 | 29.7 | 440 | 49.2 | 143 | 16.0 | 46 | 5.1 | 895 | 100.0 |
| 학력별 | 국졸이하 | 15 | 40.6 | 12 | 32.4 | 8 | 21.6 | 2 | 5.4 | 37 | 100.0 |
| | 중졸이하 | 28 | 35.9 | 43 | 55.1 | 6 | 7.7 | 1 | 1.3 | 78 | 100.0 |
| | 고졸이하 | 113 | 26.2 | 226 | 52.3 | 68 | 15.7 | 25 | 5.8 | 432 | 100.0 |
| | 대졸이상 | 110 | 31.6 | 159 | 45.7 | 61 | 17.5 | 18 | 5.2 | 348 | 100.0 |

〈표 4〉 教育目的的 利用 希望度(學歷別)

| 학력별 | 항목별 | ① 지방분교에 보낸다 | | ② 서울 본교에 보낸다 | | ③ 그때 봐서 결정하겠다 | | ④ 분교에는 보내지않겠다 | | ⑤ 기타 | | 계 | |
|------|-----|-------------|------|--------------|------|---------------|------|---------------|------|-------|-----|-------|-------|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 국졸이하 | | 3 | 8.1 | 12 | 32.4 | 17 | 45.9 | 5 | 13.5 | | | 37 | 100.0 |
| 중졸이하 | | 17 | 21.8 | 30 | 38.5 | 21 | 26.9 | 10 | 12.8 | | | 78 | 100.0 |
| 고졸이하 | | 134 | 30.8 | 42 | 9.7 | 183 | 42.1 | 66 | 15.2 | 10 | 2.3 | 435 | 100.0 |
| 대졸이상 | | 33 | 9.5 | 120 | 34.5 | 88 | 25.3 | 86 | 24.7 | 21 | 6.0 | 348 | 100.0 |
| 계 | | 187 | 20.8 | 204 | 22.7 | 309 | 34.4 | 167 | 18.6 | 31 | 3.5 | 898 | 100.0 |

와 ④를 합하면 무려 41.3%나 되며 ③ '그때 봐서'에도 34.4%가 몰려 있다. 이는 앞의 分校의 必要性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수자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必要性 問項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꼭 필요하다'와 '비교적 필요하다'에 호응하였으면서도 막상 실제로 子女를 入學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에 선뜻 肯定한 것은 20%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직 分校가 뚜렷한 教育效果를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教育의 質에 관한 懷疑 때문이거나 또는 本校에 비해 確立되어 있지 않은 名聲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로 나타난 특징은 大卒 이상의 高學歷者와 高卒 이하의 學歷者와의 사이에 큰 差異를 보

인다는 것이다. 즉 高卒者는 '分校에 보내겠다'가 30.8%이며 '本校에 보낸다'가 9.7%인데 비해 大卒者는 '分校에 보낸다'가 9.5%이고 '本校에 보낸다'가 34.5%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高學歷者일수록 本校 選好度가 크다는 것인데, 大學과 政策當局이 함께 熟考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分校가 그 本來의 設置 目的에 크게 어긋나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 問項에서 우리는 分校의 根源的 問題點이 엄연히 尙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問題의 解決을 前提로 하지 않는한, 어떤 皮상적인 임시 處方도 分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표 5〉 教育 이외 目的의 利用(實績과 意思)

| 구 분 | 문항별 | ① 자주 이용 | | ② 한두 번 이용 | | ③ 이용한 일 없음 | | ④ 앞으로 이용 의사 | | ⑤ 앞으로도 이용 않겠음 | | 계 | |
|-----|-----------|---------|------|-----------|------|------------|------|-------------|------|---------------|------|-------|-------|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인원(名) | % |
| | | 직업별 | 농업 | 6 | 8.5 | 28 | 39.4 | 22 | 31.0 | 15 | 21.1 | — | — |
| | 상업 및 서비스업 | 41 | 13.8 | 97 | 32.6 | 99 | 33.2 | 52 | 17.4 | 9 | 3.0 | 298 | 100.0 |
| | 공무원 | 9 | 6.4 | 35 | 25.0 | 72 | 51.4 | 24 | 17.1 | — | — | 140 | 100.0 |
| | 근로자 및 회사원 | 5 | 4.6 | 27 | 25.0 | 50 | 46.3 | 26 | 24.1 | — | — | 108 | 100.0 |
| | 학생 | 46 | 25.7 | 68 | 38.0 | 42 | 23.5 | 9 | 5.0 | 14 | 7.8 | 179 | 100.0 |
| | 기타 | 8 | 8.6 | 28 | 30.1 | 40 | 43.0 | 16 | 17.2 | 1 | 1.1 | 93 | 100.0 |
| | 계 | 115 | 12.9 | 283 | 31.8 | 325 | 36.6 | 142 | 16.0 | 24 | 2.7 | 889 | 100.0 |
| 학력별 | 국졸이하 | 9 | 26.5 | 8 | 23.5 | 5 | 14.7 | 10 | 29.4 | 2 | 5.9 | 34 | 100.0 |
| | 중졸이하 | 19 | 20.5 | 24 | 30.8 | 21 | 26.9 | 10 | 12.8 | 4 | 5.1 | 78 | 100.0 |
| | 고졸이하 | 46 | 10.6 | 123 | 28.3 | 175 | 40.2 | 77 | 17.7 | 14 | 3.2 | 435 | 100.0 |
| | 대졸이상 | 41 | 11.9 | 128 | 37.4 | 124 | 36.3 | 45 | 13.2 | 4 | 1.2 | 342 | 100.0 |

4) 教育 이외 目的의 利用

大學과 大學人의 役割은 직접적인 人材 養成과 研究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地域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공헌할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直接教育 이외의 機能을 심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地域住民과의 밀접한 관계와 이해를 통한 相互交流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問項은 그러한 交流關係를 파악하고자 ‘地方分校의 惠澤을 받거나 施設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래서 答項 ①은 혜택이나 이용이 여러 번 있었다, ②는 한두 번 있었다, ③은 전혀 없었다, ④는 앞으로는 이용할 생각이 없다, ⑤는 앞으로도 이용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등으로 정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應答者의 거의 半數(①+②=44.7%)가 혜택을 받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도 앞으로는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應答者도 16%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住民들이 不知不識間에 分校와의 접촉을 가질 機會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大學으로서도 地域住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를 職業別로 볼 때, 學生(他校生에 한하였음)들의 이용이 가장 많아서 63.7%(=①+②)였고 다음은 農業이 47.9%, 商業 및 서비스업이 46.4% 등인데 비해 공무원이나 근로자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알의 職種이 대부분 自營業이므로 時間的 制約이 적지만 공무원 등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利用率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공무원과 회사원 및 근로자들도 상당 수(각 17.1%와 24.1%)가 앞으로는 이용할 생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學校로서는 特殊大學院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機會를 提供할 方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分校 發展의 問題點과 展望

1) 問題點

여기서는 地域分校의 문제점에 관한 住民의 意識을 診斷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問項을 設定하였는데 그 하나는 현재 分校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分校가 地域에 어떤 惡影響(혹은 逆機能)을 주고 있는가에 관한 것

〈표 6〉 分校의 問題點 認識(직업별)

| 문항별 직업별 | ① 본교 위주의 시책 | | ② 국가 지원 미흡 | | ③ 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부족 | | ④ 학생들의 의식 | | 계 | |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 농업 | 35 | 49.3 | 14 | 19.7 | 10 | 14.1 | 12 | 16.9 | 71 | 100.0 |
| 상업 및 서비스업 | 152 | 51.7 | 60 | 20.4 | 27 | 9.2 | 55 | 18.7 | 294 | 100.0 |
| 공무원 | 21 | 15.0 | 20 | 57.1 | 13 | 9.3 | 26 | 18.6 | 140 | 100.0 |
| 근로자 및 회사원 | 54 | 50.0 | 11 | 10.2 | 10 | 9.3 | 33 | 30.6 | 108 | 100.0 |
| 학생 | 112 | 60.5 | 46 | 24.9 | 8 | 4.3 | 19 | 10.3 | 185 | 100.0 |
| 기타 | 33 | 35.5 | 17 | 18.3 | 8 | 8.6 | 35 | 37.6 | 93 | 100.0 |
| 계 | 407 | 45.7 | 228 | 25.6 | 76 | 8.5 | 180 | 20.2 | 891 | 100.0 |

이다.

먼저 前者를 알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答項 4개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즉 ① 本校 中(위주)의 敎員과 施設, ② 國家의 支援 미흡, ③ 地域住民의 認識 및 協調 부족, ④ 分校 學生들의 意識 등이었다.

이에 응답한 頻度を 職業別로 분류한 것이 〈표 6〉이다. 이 표에서 나타난 전체적 경향은 本校 위주의 施策 때문이라는 것이 약 45.7%로 가장 많고, 다음이 國家 支援 미흡이 25.6%, 세째로는 學生들의 意識(20.2%)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자세히 직업별로 살펴 보면, 學生(60.5%), 商業人(51.7%), 會社員(50%) 등은 ①번 答項에 집중되어 있고, 公務員의 경우는 57.1%가 國家 支援 미흡이라고 지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職業別로 視覺이 다른 것은 다른 職業에 비해 公務員이 國家 行政의 力量을 잘 알기도 하거나 文教政策에도 關心이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外部人인 住民이 보기에 매우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地域에 대한 分校의 惡影響에 관한 認識을 調査하기 위해서는 答項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地方分校가 地域社會에 이롭지 못하게 한 것’을 몇 가지씩 記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가장 頻도가 높은 것은 消費風潮 조성과 風氣 문란이 각각 152 명과 146 명으로 다른 項目에 비해 越等하며 그 다음이 大學生 資質 저하(64 명)와 愛鄉心 결여(61

〈표 7〉 分校의 逆機能 分類表

| 순위 | 내 용 | 인원(名) | % |
|----|--|----------|-------|
| 1 | 소비풍조 조성 | 152 | 26.2 |
| 2 | 풍기문란(유흥가 출입) | 146 | 25.1 |
| 3 | 대학생 자질 저하 | 64 | 11.0 |
| 4 | 애항심(지역 소속감) 결여 | 61 | 10.5 |
| 5 | 과다 교육열 고취 | 36 | 6.2 |
| 6 | 자격지심 고취 | 28 | 4.8 |
| 7 | 소요(취루탄) 피해 | 24 | 4.1 |
| 8 | 이질감 조성 | 20 | 3.4 |
| 9 | 문화 수준 격차 느끼게 함 | 14 | 2.4 |
| 10 | 분교와 지방대학간의 위화감 조성 | 13 | 2.2 |
| 11 |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 저해 | 12 | 2.1 |
| 12 | 지역 주민을 서로 불신하도록 만들 | 11 | 1.9 |
| 계 | | 581 | 100.0 |
| 기타 | 물가 인상 요인 동네가 시끄럽다 주민의 질을 저하시킨다(외부인의 이입으로) | (10명 미만) | |

명)로 頻도가 비슷하며 그 뒤를 이어 敎育熱 過大 자극, 자격지심, 소요, 異質感 등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떤 項目은 표현만 다를 뿐 그 內容은 전혀 同一한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것 혹은 매우 包括的인 어휘나 추상적인 지적도 있어서 그 分類에 適確性을 기하기가 곤란하였다.

여하튼 그 內容은 전체 社會에 관련된 것으로 부터 극히 個人的인 利害關係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하여 앞으로의 分校 運營에 크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分校 發展의 要件 認識

| 구 분 | 문항별 | ① 국가적 지원 | | ② 지역 사회 및 주민의 협조 | | ③ 본교의 지원 | | ④ 본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개발 | | ⑤ 우수 학생 유치 증원·증과 | | 계 | |
|-----|-----------|----------|------|------------------|------|----------|------|--------------------|------|------------------|------|------|-------|
| | | 인(名) | % | 인(名) | % | 인(名) | % | 인(名) | % | 인(名) | % | 인(名) | % |
| 직업별 | 농업 | 17 | 23.9 | 14 | 19.7 | 15 | 21.1 | 14 | 19.7 | 11 | 15.5 | 71 | 100.0 |
| | 상업 및 서비스업 | 76 | 25.5 | 43 | 14.4 | 46 | 15.4 | 83 | 27.9 | 50 | 16.8 | 298 | 100.0 |
| | 공무원 | 35 | 25.0 | 17 | 12.1 | 35 | 25.0 | 31 | 21.2 | 22 | 15.7 | 140 | 100.0 |
| | 근로자 및 회사원 | 19 | 17.6 | 5 | 4.6 | 28 | 25.9 | 32 | 29.6 | 24 | 22.2 | 108 | 100.0 |
| | 학생 | 38 | 20.5 | 15 | 8.1 | 39 | 21.1 | 66 | 35.7 | 27 | 14.6 | 185 | 100.0 |
| | 기타 | 10 | 10.8 | 17 | 18.3 | 13 | 14.0 | 32 | 34.4 | 21 | 22.6 | 93 | 100.0 |
| 계 | | 195 | 21.8 | 111 | 12.4 | 176 | 19.7 | 258 | 28.8 | 155 | 17.3 | 895 | 100.0 |
| 학력별 | 극저이하 | 13 | 38.2 | 13 | 38.2 | 5 | 14.7 | 2 | 5.9 | 1 | 2.9 | 34 | 100.0 |
| | 중저이하 | 21 | 28.2 | 7 | 9.0 | 16 | 20.5 | 16 | 20.5 | 17 | 21.8 | 78 | 100.0 |
| | 고저이하 | 91 | 20.9 | 62 | 14.3 | 93 | 21.4 | 104 | 23.9 | 85 | 19.5 | 435 | 100.0 |
| | 대중이상 | 69 | 19.8 | 29 | 8.3 | 62 | 17.8 | 136 | 39.1 | 52 | 14.9 | 348 | 100.0 |

2) 分校의 發展 要件과 展望

이에 관하여는 分校가 앞으로 發展하기 위해 어떤 條件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항과 分校는 장차 과연 發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分校의 發展을 위한 要件으로서는 ① 國家的 支援, ② 地域社會 및 住民의 協調, ③ 本校의 支援, ④ 分校의 獨立性 및 專門性 開發, ⑤ 優秀 學生의 誘墜 등 5개 答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校의 獨立性 및 專門性 開發이 28.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國家的 支援 21.8%, 本校의 支援 19.7%, 優秀 學生 유치와 增員·增科 17.3%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물론 이 문항에서도 각 答項의 重要度의 順位를 표시하도록 설문하였더라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職業別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農業者와 公務員의 경우에는 國家的 支援(각 23.9%와 2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本校의 支援(각 21.1%와 25%)을 그 다음으

로, 그리고 分校의 獨立性과 專門性 開發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데, 勤勞者와 會社員은 分校의 獨立性 및 전문성 개발을 첫째로(29.6%), 本校의 支援를 둘째로(25.9%), 그리고 優秀 學生 유치와 증원·증과를 제 3위로(22.2%) 각각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分校의 앞으로의 發展에 관해서 어떻게 展望하고 있는지를 調査하기 위하여 ① 크게 발전할 것이다, ② 약간 발전할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 ⑤ 모르겠다 등 5개 答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문하였다.

그 결과는 뒤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肯定的으로 나타났다. 즉 ‘약간 발전할 것이다’가 1위로 46.3%를 차지하였고 ‘크게 발전할 것이다’가 2위로 33%였으며 이 두 項을 합하면 79.3%로서 8할의 住民이 分校의 장래를 樂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年齡別로 보면 35세 이상의 연령층이 그 미만의 연령층보다 더욱 樂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표 9〉에서 36~45세 응답자와 46세 이상의 응답자를 합하면 모두 237명인데 그중 101명(42.6%)이

〈표 9〉 分校 發展에의 展望

| 구 분 | 문항별 | ① 크게 발전 | | ② 약간 발전 | | ⑤ 현재와 비슷 | | ④ 퇴 보 | | ③ 모르겠다 | | 계 | |
|-----|-----------|---------|------|---------|------|----------|------|-------|-----|--------|-----|------|-------|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人(名) | % |
| 연령별 | 18세~25세 | 128 | 31.4 | 182 | 44.6 | 63 | 15.4 | 31 | 7.6 | 4 | 1.0 | 408 | 100.0 |
| | 26"~35" | 75 | 28.6 | 137 | 52.3 | 38 | 14.5 | 12 | 4.6 | — | — | 262 | 100.0 |
| | 36"~45" | 51 | 40.8 | 50 | 40.0 | 17 | 13.6 | 7 | 5.6 | — | — | 125 | 100.0 |
| | 46세 이상 | 45 | 40.2 | 51 | 45.5 | 14 | 12.5 | 2 | 1.8 | — | — | 112 | 100.0 |
| 계 | | 299 | 33.0 | 420 | 46.3 | 132 | 14.6 | 52 | 5.7 | 4 | 0.4 | 907 | 100.0 |
| 직업별 | 농업 | 26 | 35.6 | 31 | 42.5 | 15 | 20.5 | 1 | 1.4 | — | — | 73 | 100.0 |
| | 상업 및 서비스업 | 118 | 39.3 | 130 | 43.3 | 29 | 8.7 | 21 | 7.0 | 2 | 0.7 | 300 | 100.0 |
| | 공무원 | 51 | 35.9 | 69 | 48.6 | 17 | 12.0 | 5 | 3.5 | — | — | 142 | 100.0 |
| | 근로자 및 회사원 | 37 | 33.6 | 53 | 48.2 | 11 | 10.0 | 7 | 6.4 | 2 | 1.8 | 110 | 100.0 |
| | 학생 | 32 | 17.1 | 103 | 55.1 | 36 | 19.3 | 16 | 8.5 | — | — | 187 | 100.0 |
| | 기타 | 35 | 36.8 | 34 | 35.8 | 24 | 25.3 | 2 | 2.1 | — | — | 95 | 100.0 |

‘약간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96명(40.5%)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로 응답한 데 비하여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응답자는 모두 670명인데 그 중에서 319명(47.6%)이 ‘약간 발전할 것이다’로, 또 203명 즉 30.3%만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로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이 더 낙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學父母이거나 곧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될 住民들이 子女를 안심하고 分校에 入學시킬 수 있기를 원하는 이른바 期待心理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상당수(전체 응답자의 5.7%인 52명)가 ‘오히려 퇴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유야 어떻든 分校가 앞으로 더 퇴보한다고 비판적으로 전망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分校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며 關聯者들이 함께 留意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5. 結 言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 調査는 地

方 分校가 최소한 地域住民에게는 매우 유익한 존재로서 앞으로의 役割에 많은 期待를 받는다는 前提下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 價値性과 問題點 및 그 解決方案에 관한 地域住民의 意識을 分析하고자 한 것이었다. 調査된 結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應答者(83%)들이 分校의 必要性을 인정한 가운데 특히 高卒 學력 所有者(87%)의 反應이 컸으며 地域社會에 대한 社會 부분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둘째, 그러면서도 막상 子女를 分校에 就學시키는 데는 20.8%만이 긍정적 反應을 보이고 高學歷者들이 더욱 否定的이었다.

셋째, 大學을 敎育 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機會가 없었다.

넷째, 향후 分校의 發展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本校 위주의 시책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고 國家 支援의 미흡과 分校 學生들의 意識 구조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地域社會에 대한 分校의 逆機能으로는 소비 풍조 조성과 풍기 문란을 가장 크게 보았고 大學生 資質 低下와 愛鄉心 缺如를 그 다음으로 본다.

여섯째, 앞으로 分校가 發展하기 위해서는 分

校의 獨立性과 專門性 開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國家的 支援과 本校의 支援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우수 학생 유치와 증원·증과 등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地方分校의 發展에 관해서는 대부분(거의 80%)이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연결시켜 종합해 보면, 地方分校를 설치한 것은 일단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즉, 分校에 자신의 子女들을 入學시키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分校의 敎育效果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그 原因이 있지만, 좀더 分校가 活性化하고 地域住民들과 긴밀한 協調關係를 가질 수 있었더라면 불식시킬 수 있었던 문제점인 것 같다.

分校 發展의 장해 요인으로 本校 위주의 시책을 꺾으면서 分校의 發展 要件으로는 分校 자체의 獨立性과 專門性 開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一見 모순된 것같으나, 住民들의 생각으로는 分校가 發展되기 위해서는 本校의 影響力 範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또 專門性 開發이라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 本校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專攻課程의 設置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逆機能으로 지적된 소비 풍조 조성, 풍기 문란, 애항심 결여 등은 比較的 폐쇄적이었던(즉 流動 人口가 적어 靜態적이었던) 小都市에 外地 學生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學生들은 相對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 環境의 要因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大學으로서는 學生指導에 각별히 留意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어떻든 이 調査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처음 계획하였던 意圖대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앞으로의 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첫번째 試圖라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그대로 넘기기로 하고 대체적인 파악의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